



호텔 화재라면 우리에게 악몽과 같은 기억이 있다.

1백60여명의 귀한 목숨들이 눈앞에서 덧없이 숨지고 있는데도 손쓸 도리없이 바라보아야만 했던 대연각호텔 화재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호텔이란 대부분의 경우 요식업이나 유흥업을 겸하기 때문에 투숙객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드나들게 마련이다. 되풀이 되는 화재사고로 화재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각종 소화설비가 날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호텔화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 언제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지난 82년 12월 29일 새벽 6시40분경 화재가 발생, 1시간50분만에 약 2,500m²에 이르는 면적을 전소시키고 사망 10명, 부상 19명의 엄청난 피해를 낸 대구 금호호텔.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하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구시 중구 하서동소재 금호호텔을 찾았다.

● 화재당시 상황

화재가 발생한 호텔 건물은 1962년에 건축된 3층 구관건물에 신관을 접속, 증축한 연면적 5,162m²

(1,561평)의 지하2층 지상6층 규모로 1974년 4월 호텔용으로 준공됐다.

화재는 새벽 6시40분 2층 주계단앞 홀의 데스크 부근에서 얼굴화상을 비관한 박 장수씨의 방화로 발생, 근처의 집기류 및 천정합판, 마감재등 가연물에 착화하여 급속히 번져나갔다. 이때 1층 환관 테라스 위에서 국기를 게양하던 정문 수위와 1층 프론트의 종업원이 화재를 발견, 각각 소방서에 신고했다.

종업원들은 화재를 발견하자 곧 투숙객들을 깨워 대피시키는 한편 소화기를 사용해 소화작업에 들어갔으나 건물내부 전층이 가연성이 높은 합판으로 시공되어 있었고 커튼, 카피트 및 각종 가구류등 장식물로 화재하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초기진화는 실패했다.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의 2, 3, 4층을 휩쓸고 5층이 연소중이었다. 소방대는 고가사다리차 2대등 소방장비를 동원, 인명구조와 소화활동에 들어갔다.

화재는 오전 7시40분 일단 연소확대가 저지됐으며 발화 후 1시간50분만인 8시30분에 완전히 진화됐다.

● 대피 및 피해상황

화재당시 건물내에는 투숙객 59명, 종업원 24명등 83명이 있었고 발화층인 2층 이상에는 모두 62명이 있었다. 이들은 화재가 발생하자 종업원의 대피유도에 따라 옥외 비상계단을 통해서 10여명이, 중앙계단을 통해서 5명이 각각 탈출했고 4,5층 발코니에 대피해 있던 4명과 건물복층에 있던 8명은 소방대의 굴절사다리차에 의해 구조되었다. 2층으로 내려온 5명은 유리창을 통해 종업원이 받쳐준 목재사다리를 타고 탈출했으며 그밖에도 여러사람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같은 대피 및 구조활동에도 불구하고 3층에서 4명, 4층에서 5명, 병원이송중 1명등 모두 10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를 냈다.

또한 구관부분을 제외한 2층과 3, 4, 5층의 내부 시설이 전소됐으며 1층현관과 다방부분은 소화활동으로 인한 水損피해를 입었다.

● 복구후 상황

대구시 중구 하서동 28번지에 위치한 금호호텔은 지난 61년 金 英基 회장에 의해 창립된 이래 계속 호텔업을 영위해 왔다. 지난 82년의 화재로 잠시 공백기를 맞았으나 화재를 겪은 종전의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지하2층, 지상21층 규모의 대형건물을 신축, 특급호텔로서 면모를 일신하여 86년 1월 26일 다시 문을 열었다.

금호호텔은 지하층에 방재실과 기계실을 두고 1층부터 7층까지는 부대영업시설로, 8층부터 19층까지는 객실로 사용하며 20층과 21층에는 각각 회원전용클럽과 스카이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화재로 많은 인명과 건물 대부분을 잃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방재설비는 소방법등 관계법규를 기준으로 하되 그 이상의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고 옥내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했으며 급배기시설, 자동방화문시설, 층별구획등 각종 소화설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

특히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객실마다 2개의 방화문을 설치하고 10층이하에는 방마다 간이완강기를, 전층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했으며 전층 각 객실마다 방송설비를 시설했다.

지하2층의 방재센터에서는 21개층 요소마다 설치된 TV카메라를 활용, 스크린을 통해 화재발생여부와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배연설비 및 방화구획내 상

황등을 2인1조 12시간 교대로 24시간 감시토록 하고 있으며 방화관리자 1명과 방재요원 4명등 모두 5명이 이 분야를 전담하고 있다.

82년 화재의 원인은 정신이상자에 의한 방화로 밝혀졌는데 당시 방화관리자였던 張 萬金씨(현 시설투장)는 근무자의 실화가 아니었음에도 형법 제 268조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상해죄로 형사책임을 지고 재판에 회부되어 결국 대법원에서 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방화사건에 관한 판례 1호를 기록한 이 재판과정중에서 당사자인 張씨는 물론 사업주까지 물심양면으로 고생이 여간 아니었다고 한다.

한편 금호호텔은 4억7천4백만원의 보험금액으로 82년4월4일부터 83년4월4일까지 1년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취급하는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1년간 보험료는 3백59만원이었다. 금호호텔은 이 화재사고 전인 82년 8월에도 전기합선(추정)으로 인한 화재를 겪어 협회로부터 1백19만여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협회는 사고발생직후 4천8백만원의 가도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친후 83년3월 최종정산된 1억2천9백만원(인명피해보험금 별도)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張 萬金 부장은 화재로 건물전체를 못쓰게 된데다가 영업손실등을 고려하면 보험금은 불만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다고 털어놓고, 그러나 방화관리에 있어 보험가입은 필수적 조건이므로 화보협회의 특수건물 화재보험은 매년 만기일에 어김없이 가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張 부장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소방행정은 현실적용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자주 바뀌는 소방방법으로 해서 실무자가 겪는 고충은 큰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행정은 마땅히 국민의 입장에서 애로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되어야 하며 관우위의 구조라면 모순과 무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얘기다. '모두에게 기쁨을'이라는 인간애 넘치는 사훈을 가진 금호호텔은 지난 화재의 악몽을 씻고 「자신 있는 자아정립, 신뢰하는 인간관계, 예의바른 봉사정신」을 경영방침으로 삼아 더욱 발전해나갈 꿈을 안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아시안게임과 88년의 올림픽대회 지정호텔로서 금호호텔의 커다란 도약을 기대해 본다.

